

전력수요관리사업(DR)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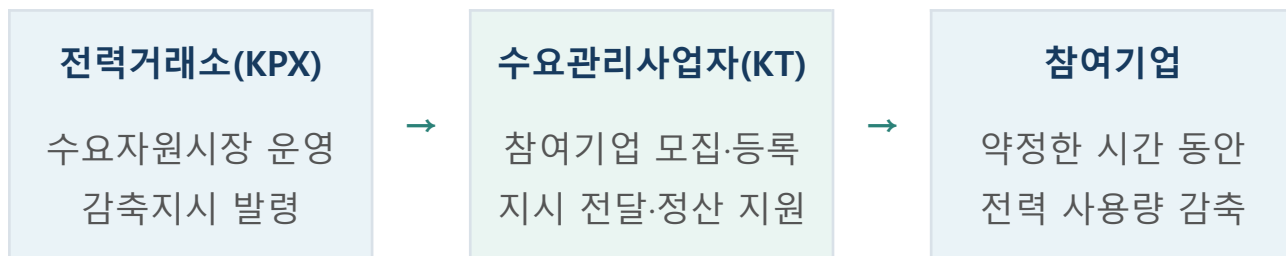
전력 사용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으세요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일정 시간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사전에 약정한 감축 가능 용량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장별 감축 가능 용량(kW)을 산정해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용량과 감축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발전소 추가 건설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사업 운영 구조



3 감축지시 운영기준

발령시간	평일 09:00~20:00 (12:00~13:00 제외) ▶ 계약전력 2,000kW 이하 : 회당 1시간 ▶ 계약전력 2,000kW 초과 : 11월 3~4시간, 그 외 1시간
사전 안내	감축 시작 약 1시간 전 발령
발령 횟수	11월, 12월~2월, 6월~9월 각 기간별 최소 1회 (연 3회 이상이며,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발령 가능)

4 인센티브 지급방식

- 감축지시가 없는 달에는 약정된 용량정산금을 지급
- 감축지시가 있는 달에는 실제 감축실적을 반영하여 정산
- 감축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 지급분 반환 등 별도의 위약금은 없음

5 연간 정산금 예시(계약용량 1,000kW · 수도권 기준)

1kW당 용량정산금	수도권 23,857원 / 비수도권 23,077원
계약용량	1,000kW
배분율	참여기업 80% / KT 20%
예상 연간 정산금	$1,000\text{kW} \times 23,857\text{원} \times 80\% = 19,085,600\text{원}$

※ 위 금액은 예시이며, 감축시험에 따른 시간별 실적정산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약용량과 정산금은 사업장별 전력사용 패턴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참여기업 주요 혜택

추가 수익	안정적 운영	사회적 기여
사용하지 않는 감축 가능 용량을 활용해 정산금 수령	KT가 등록·지시 전달·실적관리·정산 업무를 지원	전력수급 위기 대응과 국가 에너지 절감정책에 참여

KT는 자체 보유전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관리 운영을 지원합니다.